

진도문화예술제 내일 개막

22일까지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서 남도민요경창·소치미술대전 등 다채



진도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2017 진도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진도문화예술제.

진도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에서 '2017 진도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도문화예술제는 남도민요경창대회, 소치미술대전, 전국 고수대회 등 전국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공연, 교류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를 보존하고 여향진도의 문화예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제1회 강강술래 초청 공연도 열린다.

미래를 짚어지고 갈 학생 그림, 글짓기 백일장 대회와 제19회 학생종합예술제,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제도 흥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한시 진도백일장, 시와 음악의 만남 및 시화전, 진도 북놀이와 진도 만가, 소포결군농악, 조도뫼배놀이 등 전남도지정 공개발표회 등도 함께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분단의 역사, 예술의 상봉'이란 주제로 박영보 이건의 작가의 전시회와 국가지정 무형문화제 제72호 진도씻김굿 공개발표회가 각각 개최된다.

이 기간 진도를 찾은 관광객은 21일과 22일 이틀동안 일회성 서망항에서 열리는 제8회 진도꽃게 축제와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회 대한민국 우수진도개 선발대회도 즐길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속 문화예술 특구인 진도군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보존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진도문화예술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소용과 교류의 장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풍부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소상용 기자



'두근두근' 공직의 첫발, 가족과 함께 장흥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장흥군 세내기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장흥군은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신규 공무원 18명과 가족 30여명이 참

석했다.

장흥군은 힘든 수험생활을 견디고 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신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같이 특별한 임용장 수여식을 마련했다.

가족과 함께 한 임용장 수여식은 기존의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 대신 훈훈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공무원 선서를 마친 후 박은지(23세, 행정9급) 주무관은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고 어머니는 격려의 답글을 전했다.

박은지 주무관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젊은 열정과 패기로 장흥군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따뜻한 가족애를 군민과도 함께 나눌 것"을 당부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밥을 먹어요"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의 날' 캠페인



무안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무안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영양의 날' 캠페인은 전라

남도 내 19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침밥이 보약! 아침밥을 먹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무안지역의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 중심 식습관 교육의 하나로,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균형잡힌 영양 섭취의 필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문화 실천의지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해 펼쳐진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침식사의 장점과 실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실천방안을 적극 알리고, 아침밥 먹기 홍보 리플릿을 비롯해 쌀로 만든 꿀떡과 무안산 배를 제공했다.

무안초등학교 한 학생은 "떡과 배를 먹으니 든든하고 공부도 잘 될 것 같다. 아침을 안 먹고 다녔는데 이제부터 아침밥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응을 보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공동체·미래창조·정민체질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관광객 1300만 '여수', 시민중심 관광정책 시급

시민불편 개선 절실...오늘 제4기 시민위 전체 회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전남 여수시의 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시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1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개최로 인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다양한 관광시설이 도입되면서 한해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시를 찾고 있다.

특히 '여수밤비치'의 대중적 인기로 따라서 오동도에서 종포 해양공원, 이순신광장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지난 9월 말 현재 1170만 명이 다녀갔다.

관광객 증가 및 관광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구 29만의 도시는 활기를 띠지만, 시민의 삶은 관광시장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저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관광객 증가가 대형 식당들의 어그웃 상흔을 부추기고, 음식 및 숙박료 등 불가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종포해양공원 등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 공간이었던 곳들이 관광객의 발길로 몸살을 앓거나 주말 도심 교통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이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여수시는 18일 제4기 100인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시민 편의 우선의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광복할만한 관광시장 성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정체, 주차 문제, 음식·숙박업소 불가인상·불친절 쓰레기 문제, 무질서 등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등 폭넓은 주제를 고민 한 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공익기부 등으로 형성된 1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해 시민과 관광산업이 상생하는 관광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앞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광정책 육성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객 증가와 여수시민의 삶' 주제로 여수시민협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장·단점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관광객 증가가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순기능적 역할을 다했는지 살피고 여수 관광의 허와 실을 판단해 정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